

전일동향

전일대비 0.40원 상승한 1,474.60에 마감

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0.40원 상승한 1,474.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하락한 1,473.60원에 개장했다. 약달러 분위기에 환율이 한때 1,46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 속에 결제 수요가 대거 유입되면서 1,474.6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6.0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3.60	1476.50	1466.60	1474.60	1472.60
	엔화	926.92	929.66	925.67	926.08	-
	유로화	1739.33	1742.29	1733.52	1736.9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1	-3.78	-8.67	-16.5
	결제환율(수입)	-0.35	-2.54	-6.5	-12.9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국제유가 상승세 재개에...1,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4.60) 대비 5.70원 상승한 1,479.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세 재개에 따른 위험선호 열기 둔화로 상승 전망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소식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합의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처럼 협상을 둘러싼 낙관과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 지속에 따른 유가 상승은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급적으로 환율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수출업체 추격매도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점도 상승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확대는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5.25 ~ 1484.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13.8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70원 ↑
	■ 美 다우지수 : 48578.72, +115p(+0.2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6.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36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